

[토론문]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추진상황

김 남 진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장)

※ 각 발표문 내용에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함

### 1. 현 상황

- 유엔 대북제재의 틀 하에서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와 민간 분야로 교류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시기
- 통일부의 지자체 역할 강조 : 통일부 차관 주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협의체 신설('17.8.), 남북협력 전담 조직 설치 권고('18.3.)
-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분야별 TF팀 운영 등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등 준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 예산 편성 추진 중,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연구원 등 많은 협력 필요

### 2. 5+1 남북협력사업 외 민선 7기 공약사항

- ① 양식분야 : 양식기술 이전 및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및 교류 협력
- ② 축산분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씨돼지를 북측 평양돼지공장에 제공
- ③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

- 한라산과 백두산의 비교 연구, 대학교간 전반적인 교류 활성화로 점진적 확대
- 2020 제주코리아오픈 국제계태권도대회 개최 시 북한팀 초청 등

### 3. 고성준 교수님 발표내용과 관련

- 추진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안 내용에 깊이 공감함. 특히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와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이미 검토 중에 있으며,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도 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반영해 나가겠음

### 4. 김의근 교수님 발표내용과 관련

- 남북한 교차관광에 대해 제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 남북교류는 제주와 북한의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도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
-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형크루즈 접안 시설도 없을 텐데 크루즈 관광이란게 가능한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북한의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김의근 교수님 발표 내용처럼 중국, 일본과 노선 연계 등 현실성 있는 계획 구체화 필요

5. 도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정책 싱크탱크로서 제주연구원의 주도적 역할 기대

[토론문]

##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김 영 수

(서강대학교 교수)

### I. 최근 남북관계를 보는 기준

-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 단계를 설정한 후 이에 맞는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접근 필요
  -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을 ① 적대적 대결 ② 적대적 공존 ③ 비적대적 공존 ④ 비적대적 협력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는 ‘적대적 공존’ 단계에 ‘비적대적 공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
  - 남북교류협력 방안도 남북관계의 단계에 맞게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 지금은 ‘비적대적 협력’ 상황을 가정한 교류협력 방안보다는 ‘비적대적 공존’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 단계를 감안하여 실행추진 전략과 지침을 마련하는 보강 및 구체화 작업 필요

### II.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주’에 비중을 두는 제안에 동의
  - 제주와 북한과의 상호 교류협력 노력과 함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주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

- ‘제주 속의 북한 만들기’를 구체화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도 차원의 행정적 접근 필요
  - ‘북한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연수’, ‘체육교류를 위한 전지 훈련’, ‘관광, 축산 경험공유 워크숍’ 등을 수시로 열 수 있는 지정된 공간과 행정적 지원을 준비하여 제주의 경쟁력을 북한과의 교류협력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노력 필요

### III. 북한의 지자체 교류협력에 대한 태도

- 현재 북한의 지자체 교류협력에 대한 태도는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로 요약
  -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신중하게 전개하려는 태도 견지
  -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지원 및 협력에 비중을 두는 입장
  -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 지원하는 것에 관심
- 정부 간 교류협력이 지자체 접촉보다 우선
  - 향후 NGO교류는 실익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IV. 크루즈 관광의 가능성

- 크루즈 관광은 남북관계가 ‘비적대적 협력’의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한 아이템
- 북한의 SOC현황 및 관광 가능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한 후 이에 맞는 관광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을 실행해야 함
  - 현재 북한 상황으로는 크루즈 관광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항만 접안 및 관광객 수송 능력, 도로 및 휴게소, 숙박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야 함
- 지금은 크루즈 관광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북한 실태 파악에 비중을 두어야 함

[토론문]

## 남북교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토론문

신 동 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 제주-북한간 관광교류(김의근 교수) 관련 토론요지

- 상하이-제주-남포 또는 칭따오-남포-제주를 연결하는 환서해권 크루즈와 제주-나진·선봉-니가타를 연결하는 환동해권 크루즈노선 개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서해권보다는 환동해권 크루즈 노선이 보다 현실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크다.
- 첫째, 북한의 서해안 권역은 개성, 평양, 묘향산, 신의주까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원산·갈마지구에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는 이유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균형발전의 명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둘째, 환동해권 크루즈노선은 중국, 한국(제주), 일본,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동북아 평화크루즈노선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커서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를 끌어들이 수 있는 정치적 명분도 가능하다.
- 셋째, 환서해권 노선은 북한의 핵심 도시인 평양과 개성에 가까워서 외부에 드러내는 정도에 한계를 느낄 것이다. 반면 동해안 노선은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연출된 관광지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과거 금강산관광을 허용한 것도 금강산의 관광매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 다만 환동해권 노선에서 제주는 부산과의 역할 분담 또는 기능 분담이 아주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면서 환동해권 노선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남북경협 재개방안(임을출 교수) 관련 토론요지

- 통일부의 5대 국정과제 가운데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즉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 이 부분에서 과거 12년간의 감귤보내기운동, 북한주민이 제주를 방문하고 4차례에 걸쳐 800여 명의 제주도민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를 경험한 제주의 입장에서 상당한 명분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제시하는 3대 벨트, 환서해 물류산업벨트, 환동해 에너지자원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대한민국 내륙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는 제외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아쉽다.
- 토론자 개인적으로는 환동해에너지자원 벨트의 경우에는 제주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정책,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같은 에너지 정책을 북한의 동부지역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과제(고성준 교수) 관련 토론요지

- 발표자께서는 향후 감귤지원사업 등 소규모로 추진하는 등 물적 교류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과거의 북한과 달리 지금의 북한은 시혜성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 또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동감한다.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하루아침에 극과 극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 하지만 제주의 입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류 노하우,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김정은과의 사적 연계성 등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라고 본다.

[토론문]

## 남북교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토론문

강 원 명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

### 축산분야에서 추진가능한 경험 모델

#### ○ 제주산 돼지 및 액비 교류

- 제주에서는 씨돼지를 북측에 제공하고
- 북측에서는 남북(북남)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남북흑돼지 사육협력사업 준공식」과 제주지역 돼지농장에서 발생된 액비(분뇨)를 북측의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 사전 조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

##### 【평양돼지농장의 갖추어져야 할 시설 여건】

- 임신, 분만, 새끼돼지 육성 등 사육 단계별 수용할 수 있는 돈사 구조
- 사료 급이통, 급수시설, 환기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 동절기 실내 보온을 위한 난방장치

##### 【제주측 관계자 현장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출입 허용】

- 씨돼지 이송 전 위 시설여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측 관계 공무원 및 양돈전문가의 출입 허용
- 씨돼지가 북측으로 이송되는 모든 과정에 제주측 관계자의 입회 및 확인 필요

**【수입동물 검역조건 완화】**

- 제주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비발생 지역이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임.
- 따라서, 북측의 수입동물 검역조건을 최소화할 경우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돼지 이송시기가 빨라질 수 있음.

○ 현행 남측의 수출동물 검역 절차

1.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 수출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2. 농림축산검역본부 계류장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받은 검역시행장에 수출 동물 입고
3.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위생조건에 대한 검사
4.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개체별로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 검사, 혈청학적검사
5. 검역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선박 및 항공 적재, 운송
  - 검역대상 질병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열병 등

**【돼지 운송 및 입식】**

- 씨돼지 운송은 가급적 육상 운송을 선호
- 남북 출입신고 등 제반절차 이행될 경우 씨돼지 상차 후 1일 이내에 평양 돼지농장까지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장기간 운송에 따른 씨돼지 스트레스 감소로 임신율 향상
- 해상운송시 타 교류품목과 함께 이동하여야 함에 따라 운송기간 과다 소요 될 우려가 있음.

**【제주지역 돼지농장에서 발생된 액비(분뇨) 인수 여건 조성】**

- 액비(분뇨)는 현실적으로 육상운송이 불가함에 따라 해상운송 해야 함
- 북측 항구에 1만톤 내외 규모의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 필요



##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사업 추진계획

- '07. 11 제4차 제주도민 평양방문시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추진키로 협의
- '08. 11 북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양돼지공장 개보수사업 7개동 중 3개동에 대하여 내부기자재 및 제주 흑돼지(100두) 공급 지원키로 합의 ⇒ 750백만원 소요 예상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8. 9 ~ '09. 7
- 사업장 위치 :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리
  - 타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경기도, 전라남도)
- 지원규모 : 양돈장 3개동 내부기자재 및 흑돼지 공급
- 소요예산액 : 750백만원(지방비 470, 협력기금 200, 현물 80)
  - (1단계) '08. 9~'09. 3 ⇒ 양돈장 1동 내부기자재 기공급(220백만원,지방비)
  - (2단계) '09. 4~'09. 7 ⇒ 양돈장 2동(지방비 1, 남북협력기금 1) 및 흑돼지 (100두) 공급
- ※ 지방비 250백만원, 협력기금 200백만원, 흑돼지(80백만원, 농가 기부)
- 주 관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협조 : 통일부, 제주특별자치도)
  - ◆ 북 한 :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

### □ 그동안 추진상황

- '08. 9. 23 ~ 11. 11 :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1~3차 방북(개성공단, 평양)
  - 사업예정지 방문, 지원규모 협의, 합의서 작성 등
- '09. 1. 16 : 양돈장 1동 내부기자재 공급(감귤+당근)
- '09. 3. 5 : 남북협력기금 신청(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통일부)
- '09. 4. 1~5 :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4차 방북
  - 양돈장 1동 내부기자재 설치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북측에서 내부기자재 설치 완료 후 우리도 관계관 현지 점검을 통하여 2단계 사업추진
-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제5차 제주도민 평양방문을 통하여 “제주흑돼지농장” 준공식 개최

시설예정지 전경



[토론문]

## 에너지 분야

김 세 호

(제주대학교 교수)

- ▶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핵 문제 해결 가능성 등에 따라 전력 등 에너지,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개발 등을 위한 지원 확대 예상
  
- ▶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 전기
  - 남한과 북한의 전력설비 격차 : 14배
  - 2016년 발전설비 총 용량 : 북한 7,661MW, 남한 10만 5,866MW
  - 풍력 발전이 가능한 북한 지역의 발전 가능 용량이 43.6GW로 남한의 25.5GW와 비교해 약 1.7배 높고, 북한 전체 면적의 18% 수준이 풍속 초당 4.5m/s 이상인 지역
  - 서해안 지역은 풍속 8~10m/s의 남서풍이 안정적으로 불어 대규모 풍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가
  - 개마고원 지역의 높은 풍력밀도가 육상풍력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
  - 현재 북한은 북한과학원이 100kW 풍력발전기를 자체개발에 성공한 정도의 수준
  - 유니슨이 4.2MW, 두산중공업 5.5MW, 8MW(개발 시작)
  - 북한은 2044년까지 5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투자해 전체 발전량의 15%를 풍력으로 확보한다는 전력 수급정책을 발표
  
- ⇒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남북한 관련 에너지 분야 세미나 활성화

- 7월 10일 - 환경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신 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협력방안 세미나’
- 7월 4일 - 한국전력
  - ‘2018년도 전력스쿨 및 제3차 전력경제포럼’
- 6월 21일 - 조선비즈
  - ‘2018 미래 에너지포럼’

▶ 세미나 주된 주제 : 동북아 슈퍼그리드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의 전력망을 잇는 초대형 프로젝트
- 남북한과 동북아 전력협력사업을 병행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국가로 도약이 가능
- 전기가 남는 국가와 부족한 국가가 전력을 주고받아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 러시아의 천연가스, 몽골의 태양광 전력을 수출 상품처럼 이웃 나라에 파는 것으로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하는 사업으로 확대
-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 80여개국은 이미 250GW 이상의 전력을 연계
- 동북아 지역은 지형과 정치적 상황으로 국가 간 전력망 연결이 안된 상태
- 현재까지 한·중은 전력망 연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한·러는 전력망 연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계획 중

⇒ 동북아 HVDC 연계망 구축과 전력시장 운영이 핵심이며, HVDC 송변환 기술의 자립 필요

▶ 정부 - 신재생 3020이행계획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

▶ 제주도 - CFI 2030

- ‘2030년까지 연간 제주도 전력수요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

- ◆ 대규모 투자 및 기간이 소요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 ◆ 남북한 에너지 협력과 제주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계
  - ▶ HVDC(연계선) 운영 능력 활용
    - 현재 제주도에 2개의 연계선이 운용되고 있고 2020년 3연계선 구축 예정
  - ▶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기술 확보
    - 마을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결합한 자립마을 구축 및 운용 기술
  - ▶ 신재생에너지 및 HVDC 관련 교육센터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도내 대학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HVDC 관련 기술자 교육과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제주도의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자립형 개발
    - 이익공유화 기금을 활용한 경제성 및 기술력 확보 모델 구축